

같이 보기

: 신입사원 특특

신입사원 (TALK TALK)

특특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협회는 2022년 1월, 채용연계형 인턴채용을 통해 인재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인천산업보건센터 환경위생팀 허도영, 이미애 사원을 소개한다.

예비조사도 하고 있으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이하이) 안녕하세요. 환경위생팀에서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이미애입니다. 저는 GC, AAS 등을 사용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협회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허 저는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평서널 간호체계를 선택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액팅 간호사로 시작해 기본적인 간호 처치를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능숙하게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퇴근 후에도 틈틈이 공부하며 간호사의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병원 특성상 다양한 내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며 각 대상자에 적합한 간호를 배우고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람과 직업적 책임을 배웠습니다.

Q 자기소개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허도영(이하허) 안녕하세요. 인천산업보건센터 환경위생팀에 근무하는 허도영입니다. 사무실에서 측정 준비를 한 후 사업장 유해 물질 노출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하여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사업장에 나가

이 환경 관련 기관에서 2년 정도 분석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수질부터 토양,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을 해본 경험으로, 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협회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허 목표로 했던 협회에 입사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측정 업무가 처음이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업무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체력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면서, 여전히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팀원들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래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석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팀장님, 차장님뿐만 아니라 타 센터 선배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셔서 업무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와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분야를 알아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팀원들과 인턴교육을 통해 만난 동기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에 의욕적인 태도와 원활한 소통 등의 업무 분위기가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무에 의욕적인 팀원들의 태도를 보며 저도 더 발전하고자 자극을 받게 되고,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 진행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허 저는 업무와 공부를 꾸준히 병행할 생각입니다. 지속해서 전문성을 키워 산업보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협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저도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전문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차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산업보건의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인재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사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협회의 인턴 채용제도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산업보건 전문가의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용제도를 통해 협회에 유능한 인재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누구보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의지가 불타오르는 친구들! 산업보건 전문가로서 첫발을 뗀 인턴 친구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아직은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소중한 경험들이 쌓여 대한산업보건협회를 밝혀줄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